

우리 나라 대학의 평생교육 현황 및 지향점

이 월 균 명지대 사회교육원장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산다. 매일 매일 공부하고 있다. 일을 하다 배우며 친구들과 담소하다 배운다. 전철에서 옆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우기도 한다. 재래 시장의 아우성 속에서 배우기도 한다. 배우며 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다. 이와 같은 배움을 통하여 예지가 쌓이고 지혜가 축적된다. 슬기와 총명이 증진된다. 이 예지와 지혜와 슬기와 총명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제보다 오늘에 우리에게 덕치는 일들을 더 잘 수행해 나간다. 오래 사신 분들의 한 말씀이 매일 매일의 배움의 축적이다. 경청하면 배우는 바가 많다.

선사시대에는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인류의 문명의 시초를 이루었다. 이 시초에 힘입어 도구를 만들고 협동을 배우고 실천하며 도덕률을 만들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하였다. 인간의 수명도 연장되었고 각종의 문명의 이기가 출현하여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류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는 세상으로 진보해 온 것이다.

그러나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양은 크지 않다. 그래서 정규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단기간에 학습토록 하는 것이다. 인류역사 5천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의 대강을 중등교육까지 배운다. 대학에서는 어느 한 분야를 택하여 그 분야에 축적된

지식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다른 분야의 지식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된다. 이 정도면 사회의 전문분야에서 제 몫을 담당할 충분한 지식을 얻게 된다. 지식을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원에서 지식의 창조 방법을 공부하고 지식의 창조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정규교육은 무척 중요하다. 정규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최신의 지식과 교양을 얻으며, 그리고 엘리트가 된다. 또 사물을 보는 독자적 안목을 갖게 되고 독자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다. 이를 통하여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 그러나 정규교육으로 배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등장하고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교육원이 정규교육기관보다 더 중요하다. 정규교육기관은 일정기간 통과해 가야 하는 기관이지만 사회교육원은 평생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사회교육원은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초·중등교육을 베풀어 주는 기관이다. 이 교육을 받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그리고 서로 연관이 없는 형태로 초·중등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내용들

을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연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옳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사회교육원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식의 체계화를 가르쳐 준다. 경험과 단편적 지식에 체계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경험이 지식으로 변형되고 단편적 지식이 체계적 지식으로 승화된다. 이 지식을 통하여 창조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원은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택한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지식은 크지 않다. 물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에도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는 이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남자 중학생을 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중학생은 필자가 보기에는 평범한 중학생이다. 같은 참고서를 몇 번 사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과 용돈을 절약하여 얻은 돈으로 짹꿍인 여학생 생일 선물로 장갑을 사고 꽃을 사고, 막상 어머니 생신에는 “엄마 축하해요”라는 말만 하는 중학생. 필자가 보기에도 이 학생은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이다. 그러나 이 학생의 어머니는 ‘저 녀석이 벌써 저렇게 컸나’ 하는 대견함과 함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고백이다. 어떻게 이 학생은 같은 참고서를 여러 번 더 사서 짹꿍 생일 선물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짹꿍 장갑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되풀이하여 산 참고서 값만 해도 무척 부담이 되고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컸을텐데 말이다.

그 분은 자연 과학을 전공한 분이다. 아울러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는 분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과정이 우리 사회교육원에 있으니 그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넘지시 권하였다. 이 과정을 한 학기 마친 후 아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없고 그 아들이 대견하다면서 아들 자랑에 정신이 없어 필자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잊고 있었다.

사회교육원의 일부 과정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대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문지식을 얻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대학 교육과정의 지식을 원하는 사람, 다른 분야의 지식을 획득하고 이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나 실무적 지식밖에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얻어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대학교육 수준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 입학하여 이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사회교육원에서는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어 교육에 드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교육원은 이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교육원은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동호인들끼리의 친목과 우애도 증진시키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함양한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를 통하여 이것을 사회에 보급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에 국한한다면 실패한다.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함양과 사회봉사가 함께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매일매일 탄생한다. 한 예로 컴퓨터를 보자. 286, 386, 486, 586, 펜티엄Ⅱ, 이것이 PC의 이름이다. 이 기종은 근래의 이름이다. workstation급을 이제 PC로 갖게 되었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PC도 workstation급이다. 휴대 전화가 전화의 대

명사가 되었다. 자연과학과 공학의 급속한 변화가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음악, 미술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얼마나 다채로워졌는가. 음악의 트랙에 음을 입하고 그 위에 덧씌우고 또 덧씌우고, 이렇게 하여 현란한 음악이 탄생한다. 이제는 옛이야기가 된 “홍도야 울지마라” 음반을 비교해 보면 그 발전의 속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가끔 음악을 하는 분들께 “홍도야 울지마라”를 편곡하여 지금의 녹음기술로 음반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있지만 아직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정도 지나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구식이다. 새로 탄생된 이론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때쯤의 대학생은 신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 물론 두 세대간에 기본 지식은 공유한다. 기성인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신지식으로 무장한 신진이 치고 올라 오니까. 그 사람들도 10년쯤 지나면 선배와 동일한 위기에 직면할 운명을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문제이고 지금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속한 소규모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낙오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사회교육원이다. 물론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의 소요가 같다. 대학원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본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얻으면 된다. 한 두 과목만 이수하면 새로운 지식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 한 학기, 또는 길어야 1년이면 끝난다.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평생 분야라는 것만 존재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이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계속해서 연마하지 않으면 직장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도 도태되는, 어찌보면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로 창출

되는 지식을 적절한 시기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이와 같은 길은 사회교육원에 있다. 사회교육원은 이러한 일도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교육원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크게 공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분야가 사회교육원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필자가 속한 명지대 사회교육원은 이 분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조만간에 이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에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이 있어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가 원하면 어느 지식이든지 이 사회교육원에서 얻을 수 있다. 선현들이 실토한 바와 같이 인간은 언제나 배움을 원한다. 생활에 필요 없는 지식도, 일을 하는 데 필요 없는 지식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고구려가 만주에 터전을 잡고 중국인을 호령하며 살았다는 역사기행을 TV에서 시청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은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윤택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평생교육의 제도가 이 땅에 실현되고 발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교육원에서 다양한 지식,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 취미와 봉사를 완벽하게 해 주는 지식,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식, 창조를 선도하는 지식,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지식 등을 배워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가꾸어 나가기를 소원한다.

IMF라는 충격이 우리 사회에 발생한 후, 사회교육원에 학생들이 감소하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생활에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교육원은 교육비가 저렴하다. 정규 교육은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비가 저렴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교육원은 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평생을 통한 교육과 자기함양과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 따라서 일 년 간의 학비는 정규 교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성의만 있으면 등록하여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곳이다. 사회교육원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저렴한 교육비이다. 교육비가 저렴하다고 교육의 질과 양이 대학교육에 비하여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교육과 동등하다.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의 특강도 가능하므로 대학교육보다 오히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강의도 많다. IMF 시대일수록 사회교육원에 등록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창의성과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후일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학에 부설된 사회교육원은 대학 캠퍼스 안에 있기 마련이다. 사회교육원 학생들도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장서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제반 기기와 실험 기자재들을 마음껏 이용한다. 넓은 운동장에서 학부의 학생들과 운동도 같이 하며 학생으로서의 순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동아리도 만들어 학문 이외의 분야도 탐색할 수 있다. 사회교육원에 입학하면 그 순간부터 대학생의 신분을 얻는다.

교내의 휴게실에서 젊은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학교 근처의 여러 편의시설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교내와 학교 근처의 편의시설들은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은 저렴하다. 사회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학교생활이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회교육원 생활은 지적탐구에서 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학생신분에서 발생하는 특권과 즐거움도 함께 누리게 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현대는 정보가 이끄는 사회라고 한다. 대학은 원래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대학에서 생성되어 사회에 퍼져 나간다. 그러나 대학은 대학이 창출하고 창조해 낸 정보를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창출되고 개발된 정보의 접근에 있어 대학은 폐쇄적이다. 대학에 등록한 학생에게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공여한 사람이나 기관에만 이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 창출된 정보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사회교육원이다. 사회교육원은 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보가 대학에서 사회교육원으로 흐른다. 사회교육원이 대학의 부설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흐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대학교수들이다. 그들이 창출한 정보는 자기 학생들인 사회교육원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대학교육은 창조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인 것이다. 사회교육원 학생들은 대학이 창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대학 이외의 곳에 설치된 기관과는 다른 특수한 점이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사회교육원은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이며 평생을 통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기관이 대학 내에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대학이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어느 때에는 대학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데에 큰 장점이 있다.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학부 및 대학원과 사회교육원은 실제로 교류가 활발하다. 일부 과목은 대학 내의 이 두 기관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사회교육원 학생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부나 대학원의 학생들이 사회교육원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학과목이 성적표에 등재된다. 이와 같은 학점교류를 통하여 두 기관이 대학 내에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에 있어서 일부 과목을 학부와 사회교육원이 통합하여 개설하고 그 관할을 사회교육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 사회교육원이 관할하면 수강료가 저렴하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 전체가 교육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부 및 대학원과 사회교육원의 통합관계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측면의 개발이 요청되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성실히 운영될 때, 대학 전체의 교육의 수월성이 한 차원 높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육원은 연만한 사람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 교실과 한 캠퍼스에서 생활한다. 서로 사귀고 존경하며 학생 생활을 영위한다. 학생이라는 공통적 신분에 의하여 서로 간에 동료의식을 갖고 있다. 모두가 같이 먹고, 같이 체육활동도 전개하며, 동아리 활동도 한다. 피크닉도 함께 한다. 휴게실에서, 커피숍에서, 소주방에서, 호프집에서, 된장찌개집에서 함께 어울려 애환을 함께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우의를 쌓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세대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특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특성들이 상호 부딪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융합한다. 이 융합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사회이다. 민주사회는 민주시민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민주시민은 자신의 개별적 영역과 공동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통적 영역을 갖고 생활한다. 그 동안 정규 교육은 개개인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것을 키우고 가꾸어 나가게 하는 능력은 홀륭하게 개발시켰다. 그러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공동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 중 일부가 소홀히 된 듯한 감을 갖는다.

이 민주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갖추고 실천해야 할 실천율에 대한 과정도 사회교육원에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원이 모체가 되어 민주사회의 완벽한 구현을 이루기 위한 전국적 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종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은 대

학과 전문대학에 부속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제는 모든 곳에 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이 소속된 사회를 모든 면에서 이끌어 가는 기관이다. 미국 보스턴 지역은 하버드, MIT 등을 비롯한 명문대학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 대학들이 연구해 내는 지적 산물과 대학이 주도하여 생성시키는 지적·교양적·민주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모든 면에서 미국을 선도하는 지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대학들도 그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대학에 속한 사회교육원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올바른 민주사회와 시민사회 정립을 위한 연대도 가능하다. 이 연대를 통하여 시민사회가 갖추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선양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덕목이 실천되는 아름답고 홀륭한 민주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육원 가운데 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과정을 정립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갖추어 있지 못한 설정이다. 이러한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은 대학이 담당하기는 어렵고 사회교육원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며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은 속성상 지역사회와 고도의 지적 연합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켈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나 스텐포드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를 보면 이 점에 수긍이 갈 것이다. 말하자면 대학은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주로 사회에 봉사한다. 일반 시민과의 유대관계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설정이다. 그것은 대학이 고도의 학문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교육원은 일반 시민의 평생을 통한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시

민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각종의 유익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공동행사도 개최한다. 예컨대 음악행사, 연극행사,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시민과 접촉한다. 이외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와 사회발전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따라서 사회교육원이 지역시민에 직접 봉사하는 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은 그간 정례적인 대학평가, 정부의 교육개혁, 국내 대학들간의 경쟁,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상당한 내실을 기하여 왔다. 교수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동안은 시설기자재의 부족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연구의 측면이 다소간 소홀히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족과 미비점이 해소되어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어 각계각층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갖추고 있는 탁월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원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고, 교육의 효율성의 극대화와 수월성이 확보되어 있다. 대학의 정규교육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회교육원은 이용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을 초청하여 강의할 수도 있고, 사회가 갖추고 있는 자료들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원들이 사회가 갖추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감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하여 발전시키면 사회교육원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대학의 사회교육원은 그 소속 대학이 갖추고 있는 역량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사회가 갖추고 있는 역량을 사용하여 성공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너무 의존하면 실패할 위험성이 있어 신중이 요청된다.

사회교육원의 제반사항은 정부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도는 각 사회교육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회교육원이 속한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역량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설치되지 않은 과목이라 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과목이고 대학의 종합적 능력에 의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사회교육원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사회교육원이 존재하며,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이 사회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사회교육원이 학원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회교육원은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비하여 열등한 기관이 아니다. 사회교육원이 다루고 있는 영역의 측면이나 지식정도의 측면에서 대학의 정규과정과 비견되는 실력을 갖추고, 이에 비견되는 학문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 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미비하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여되어 있다.

사회교육원이 발전해야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정규교육은 일정기간에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식을 함양케 한다. 그러나 사회교육원은 평생을 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과 교양과 시민의식과 지식을 골고루, 그리고 부단하게 갖추도록 하는 기관이다. 사회교육원이 정규 교육기관에 비하여 열등한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우월한 위치에서 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원의 이 같은 사명을 국민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사회교육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면을 강조하는 홍보에 있어서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

치는 기관이며,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홍보에 적극성을 갖는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필자는 '80년대부터 학점은행제와 시간제등록 등을 주장하여 왔다. 이제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기쁘다. 학점은행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대학의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일정한 학점을 한 대학의 사회교육원에서 이수하면 그 대학의 학위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중 이미 해당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일부의 학점이 면제되는 훌륭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의도한 바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각 사회교육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사회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홍보도 당분간은 정부가 주도해야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널리 인식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 제도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하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은 교양적인 지식과 일부의 전문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함양시켜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전문지식의 영역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아울러 근래에 개발되고 창안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는 기능이 별로 없는

데, 이 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나, 이미 여러 해 전에 대학원 과정을 마쳤으나 매일매일의 업무 때문에 최신 지식을 신속히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때에 사회교육원이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교육원의 기능이 일반사회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능을 사회에 깊이 있게 알려서 사회의 호응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능이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교육원은 제 기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기관으로 존경받는 교육기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

이일균

서울대 불문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부총장과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연구위원, Pennsylvania 주립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명지대 교수로서 명지대 사회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자본시장론』,『재무관리』,『계량분석론』,『COBOL 프로그래밍』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카오스 현상과 자본시장의 가격형성 메커니즘", "Empirical Tests on the Consumption-Based Asset Pricing Model by Estimating the Risk Aversion Coefficient in the Korean Economy" 등이 있다.